

## 금주의 기도 할 나라 : 2024년 기독교 박해 지수 7위 : 파키스탄 (Pakistan)



- 수도: 이슬라마바드
- 언어: 우르드어, 펀잡어
- 종족 수: 792 종족
- 전체 인구 : 244,130,000 명
- 가장 큰 종교: 이슬람 97.6%
- 기독교 : 1.04%

‘거룩한 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키스탄은 중국과 인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의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인구는 세계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무슬림의 수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많다. 파키스탄의 특이한 점은 인구중 55%가 어린이, 청소년, 청년으로 구성된 차세대가 많다. 파키스탄은 수십 개의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들의 서식지이다. 정부의 자문 기관들은 점점더 법에 영향을 미치는 이슬람교 학자들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파키스탄은 수십 개의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들의 서식지이다. 정치, 사법제도, 그리고 군대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 조직 범죄는 도시와 부족 지역에서 큰 문제이고 폭력적인 이슬람 교전 상태와 빈번히 연관된다. 알라나 이슬람 경전인 꾸란을 모독하거나 비난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 받을수 있는 신성 모독법이 존재하는 나라이다. 국가의 악명 높은 신성 모독죄는(이슬람교 소수 집단들을 포함한) 소수종교를 겨냥한다. 2023년 8월 최소 21개의 교회가 불타고, 파괴되고 그리고 수백명의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던 곳에서 도망하였다. 무슬림 배경들 가진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배교자로 간주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과 개종을 수치스러운 배신행위로 간주하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종교적 자유 침해의 가장 큰 타격을 당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기독교인으로 살기에는 가장 힘든 나라중 하나이다. 기독교 여성들은 납치를 당하고 강간 및 강제 결혼을 당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인 남성들도 신성 모독 혐의, 재산 파괴, 투옥, 구타, 그리고 처형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 공동체로 함께 모여산다. 파키스탄은 거리 전도가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억압속에도 그들은 기회가 되는데로 거리로 나아가 무슬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꿈과 소망이 없이 슬과 마약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 영원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다.

### 기도 제목:

1. 파키스탄의 다민족들이 주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게 하소서
2. 어려움속에 있는 성도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을 성령 충만 하게 하소서
3. 유괴, 성노예, 강제 결혼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매들이 속히 자유케 되기를 허락하소서

### 예배안내

주 일 예배	주 중 집 회
1부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월~금) 오전 5:30
2부 오전 11:00 (유아, 유치, 유년, 중고등부 예배 동시)	금요 기도회 오후 8: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교육부 금요 모임 오후 8:00
English Service (EM) 오후 1:30	EM 주일 성경공부 오후 3:30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  
New Jersey Harvest Church

제 14권 51호

영과 진리로 예배

2024년 12월 22일

주 일 예배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 예배 초청		다 함께
* 찬 양		다 함께
* 사도 신경		다 함께
대 표 기도	1부: 박영재 장로 / 2부: 이서구 장로	
* 봉 헌	찬송가 634장	다 함께
광 고		인도자
성 경 봉 독	레위기 16:6 ~ 10 Leviticus 16:6 ~ 10	설교자
설 교	아사셀 염소 Azazel Goat	박준섭 목사
* 찬 송	이 땅 위에 오신	다 함께
* 축 도		박준섭 목사

\*표는 일어서서

다음 주 대표기도 12/29 (1부: 신동원 장로 / 2부: 이창훈 장로)

### 금요기도회

2024년 12월 27일  
오후 8:00

### 경배와 찬양

### 성 경 봉 독

로마서 1:13-17

### 설 교

하나님의 능력  
<박준섭 목사>



KPCA 해외 한인 장로회  
NIJHARVESTCHURCH.ORG

\*금요기도회와 동시에 교육부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신앙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370 Demarest Ave., Closter NJ 07624  
Tel (201) 784-1974 / Fax (201) 784-1361

## 기도제목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아래와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1. 병환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환우들의 연약한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 얻게 하소서.
2.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All Nations Harvest Church(다민족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3. 12월 26일 ~ 28일 있는 Ao1 중고등부 겨울 연합 수련회를 통해 믿음의 온전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주님께 삶을 드리려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 선교회가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들

- 1 & 4 선교회: 장석중/이정희(서아시아), 백승운/백혜선(버지니아/동유럽 조지아)  
 2 & 3 선교회: 하명진/노혜영(아이티), 최광모/오지윤(뉴저지)  
 5 선교회: 마이크 고다(그리스), 오정호(텍사스)  
 6 선교회: Bryan Chu/추소희(튀니지), Larry Sterwart(펜실베이니아)  
 7 선교회: 사라 휴(뉴저지), Russell Abraham(뉴욕)

헌금위원	12/22/24	12/29/24	지난주 헌금		
1부	최진우 집사	최효석 집사	십 일 조	7,780.00	감사헌금 1,480.00
2부	심재화 집사	오창환 집사	주정헌금	2,821.00	선교헌금 160.00
			건축헌금	50.00	주교헌금 90.00
			절기헌금	0.00	청년부헌금 0.00
			지정헌금	320.00	E M 헌금 1,030.00
			친교헌금	50.00	기타수입 0.00
			헌금 합계 : 13,781.00		



헌금은 들어 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Offering box may be used  
to give your offering  
as you enter for worship.

venmo  
온라인헌금 바로가기

## 교회소식

-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결과**  
담임목사 청빙 안건은 정선약 목사로 가결되었습니다.
- **성탄주일** 오늘 주일은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 **예배**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은 박준섭 목사께서 전해 주십니다.  
- 2024년 12월 29일 주일 설교 말씀 - 하동호 목사  
- 2025년 1월 5일 주일 설교 말씀 - 정선약 목사
- **교육부 행사**  
**교육부 성탄절 발표회**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교육부 발표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12월 26일~ 28일 (목-토) 까지 Ao1(Audience of One) 에서 주관하는 겨울 뉴저지 청소년 연합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장소: 뉴저지 장로교회 (오클랜드)
- **송구영신예배**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9시 송구영신예배로드립니다.
-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 2025년 1월 6일(월) - 10일(금) 인도: 정선약 목사
- **Toy 도네이션** 클로스터 경찰서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불우 아동들을 위한 토이 (장난감) 를 기부 받고 있습니다. 도네이션 하실 분들은 상자를 뜯지 않은 새 장난감을 1층 사무실 앞 상자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성탄 발표회 순서

1. 영아부 율동 찬양 - 1. 썩썩 자라요 2. 기쁜이날
2. 유치부 & 유초등부 뮤지컬 “아기 예수 태어났어요”
3. 중고등부 Live Worship & Reading Scripture - Joy To The World

## 교우동정

### 소천

- 이주형 집사(배은옥 전도사)의 부친 고(故)이제만 집사께서 지난 12월 14일 91세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집사님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타

- 이주형 집사 (한국 방문)

## 교회 행사

- 12/22 (주일) 성찬식, 크리스마스 교육부 발표회
- 12/31 (화) 송구영신예배